

## ‘금융’은 잘못 없다, ‘시스템’이 문제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금융’이다. 금융은 사람, 사회, 경제를 매개하는 가장 밀접한 제도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제 위기를 촉발시킨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탐욕의 대명사로 비난받기도 한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이 같은 원인으로 파생되었고, 전 세계 80여 개 국가로 확산되었다.

과연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금융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단지 몇몇 이기적인 탐욕자들에 의해 금융 위기가 발생하는 것일까. 올해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에일라드 경제학과) 교수가 금융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한 ‘새로운 금융시대’를 펴냈다.

저자는 책에서 ‘금융’과 ‘좋은 사회’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화두를 설파해 있게 풀어냈다. 로버트 실러 교수는 ‘금융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물론 금융을 약탈자라고 생각하는 이들도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한다.

원래 금융(finance)의 어원은 라틴어 ‘finis’에서 왔다. 이 말은 목표(end 또는 goal)를 뜻하는데, 금융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역사적인 면에서 금융은 산업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흡수했다. 산업혁명과 정보지식 시대를 앞당기는 데



### ‘새로운 금융시대’

로버트 실러 지음

도 기여했다.

저자의 입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집값 상승에 대한 잘못된 예측과 신용평가의 문제지 모기지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는 당시의 금융위기는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들이 과속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운전자들도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잘못 설계된 고속도로 때문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금융위기도 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오류를 만들어 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험투자상품으로 인식되는 주식이나 채권이 폐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기도 하며, 펀드 또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자금을 제공한다. 보험, 저금, 연금 등도 개인의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적잖은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금융은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고, 사람들은 그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다. 미완성인 발명품을 여차피 써야한다면 제대로 시스템화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실물경제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로버트 실러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한다. 중요한 기업 CEO 보상액은 상당부분을 재임기간이 끝난 5년 후에 지급하는 입장이다. 짧은 재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도덕적 유혹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은행의 민주화도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기업은 운영자금을 대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은행의 모럴헤지드가 발생한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은 이러한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민간주도로 설립된 마이크로크레디트는 빈민들에게 소자본 창업자금을 지원,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었다.

또한 금융이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절세 비즈니스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대신 사회 구성원을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자리 창출, 대학 등록금, 서민주택, 노인빈곤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RHK·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본능적이지만 불확실한... 무엇을 치료할 것인가

### ‘불안의 시대’

앨런 호위츠 지음

현대는 불안의 시대다. 인류는 불안을 느끼고, 만들고, 또한 치료해왔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앨런 호위츠 러트거스 대학교 교수가 쓴 ‘불안의 시대’는 시대와 문화에 따른 다양한 두려움과 불안의 양상을 탐구한다.

저자는 각 시대마다 불안을 이해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불안이라는 감정의 역사를 서술함과 동시에 철학, 종교, 의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와 수단을 이용해 이를 치료하고자 했던 역사를 조명한다.

술과 아편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불안을 없애기 위해 처방되었고,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와 신앙이 불안을 없애는 역할을 수행했다. 프로이트가 제창한 심리적 억압 이론과 정신분석은 불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으며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인지행동치료법은 불안을 치료하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이 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는 약효가 뛰어나고 복용이 간편해 불안을 치료하는 주요한 방편이 되었다. 21세기 들어서는 과학의 발달로 치료법이 점차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추세다. 그러나 아무리 치료법이 발달해도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있다. ‘무엇을 치료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불안과 두려움은 보편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형태나 성질, 또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정상적이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감정이 되기도 한다.

(중앙books·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자유·평등·박애라는 구호 뒤에 숨겨진 검은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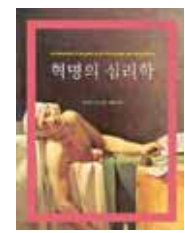
### ‘혁명의 심리학’

귀스타브 르 봉 지음

프랑스 혁명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뚜렷하게 갈린다. 국민주권을 최초로 실현한 혁명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얻은 것에 비해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패하를 불렀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군중의 심리학’으로 유명한 프랑스 사회심리학자 귀스타브 르 봉이 ‘혁명의 심리학’을 펴냈다. 저자는 책에서 20여 년 동안 유럽 전역을 불타게 만든 프랑스 혁명의 메아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관점을 드러낸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정착시킨 것은 좋은데, 비슷한 이상을 추구하던 사람끼리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서로를 단두대로 처형해왔다는 데



한 의문을 던진다. 또한 혁명세력과 혁명 반대 세력의 투쟁으로 수백 만 명의 국민이 죽어야 했던 혁명이 과연 ‘대혁명’으로 기록될 수 있는지 회의적 시각도 드러낸다.

물론 저자는 프랑스 혁명이 인간의 권리와 관련해 이론 성취를 과소 평가하지는 않는다. 단지 행동에 앞세웠던 혁명의 주동자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다.

“행동이 현실을 경멸하면서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사건들의 몰골기를 바꿔놓겠다고 나설 때, 그 행동은 언제나 해롭다. 사회를 갖고 마치 실험실에서 도구를 갖고 실험하듯 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의 정치적 격변은 그러한 사회적 실수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안겨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클·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보통 사람’을 위한 경제 길잡이

### ‘하룻밤에 읽는 경제’

장순욱 지음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입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다. 삶은 결국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의 문제다.

경제만큼 일상에 밀접한 주제는 없다. 하지만 ‘경제학’은 다르다. 온갖 용어와 숫자, 그래프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 없다.

지난 20년 간 경제에 매달려 온 장순욱이 ‘보통 사람’을 위한 경제 길잡이 ‘하룻밤에 읽는 경제’를 펴냈다.



짧은 시절 경제를 몰라 세상이 답답하고 취직이 걱정됐던 저자는 자신의 체험으로 얻은 생생한 경제 지식은 책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책은 누구라도 꼭 알아야 할 경제를 일상의 언어로 쉽게 풀어냈다. 수요와 공급처럼 기본적인 경제 법칙부터 세계 경제 전망까지 폭넓은 지식을 총망라하고 있다. 자료와 사진을 첨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페이퍼북·1만5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1급 홀리건’ 전직 야구선수 분투기

### ‘홀리건 K’

최흥훈 지음

제1회 수필문학상(상금 5000만원) 수상작인 최흥훈의 장편소설 ‘홀리건 K’가 출간됐다.

‘홀리건 K’는 20년전 고교야구 시절에서 있었던 오심에 항의하기 위해 야구계의 절대권력 국민심판 ‘포청천’에게 찾아가 대항하다가 1급 홀리건으로 낙인찍힌 전직 야구선수의 파란만장한 분투기다.

소설은 홀리건이 아닌 야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소수자들에 대한 지배세력의 차별을 시종일관 폭심



있고 도발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작가는 절대권력이 군림하는 야구계를 한국사회의 축소판으로 설정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공정을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야구에 대한 정보와 언어를 재치와 위트가 넘치는 섬세한 문체로 그려낸다.

“야구 소설을 쓰다 보니 본의 아니게 축구나 농구를 비하하고 말았다”며 축구팬과 농구팬에게 진심어린 사과도 잊지 않았다. (연필뉴스·1만2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제천간디학교 10년, 대안교육 100년을 준비한다

### ‘흔들리며 피는 꽃, 간디학교’

제천간디학교 지음

대안교육이 시작된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후 약 300여개의 대안학교가 생겨났고, 혁신학교와 공립형 대안학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늘어난 숫자 만큼 대안학교는 앞으로 질적으로 더욱 성장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한국 최초의 사설 대안학교인 제천간디학교(중·고 통합 6년 과정)가 학교의 생활상 등을 담은 책 ‘흔들리며 피는 꽃, 간디학교’를 펴냈다.

제천간디학교는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새로운 10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설명했다. 또 대안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책에는 간디학교에서 교육과 삶의 터전을 함께 일구어가는 취지 아래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이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영양사 등의 글을 통해 소개된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터 행사, 지역아동센터 운영, 합동조합, 마

를 활성화 사업 등이다. 간디학교의 모습을 졸업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기도 한다. 지역주민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20여 간디가족의 이야기도 엿볼 수 있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천간디학교는 많은 성장을 했고 지금의 꽃을 피우고 있다. 부모님이 권유를 했던,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던, 아이들이 제천간디를 선택한 것은 엄청난 결정이며 도전이다.” (본문)

(공리·1만5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신간

### ▲플랫=한국YWCA연합회가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를 가운데 둬는 지도자 부문의 수상자 8명의 걸은 길과 현재를 인터뷰해 책으로 묶었다. 강원도 화천에서 농사지으며 번역하고 글도 쓰는 ‘왕년의 과격한 여성주의자’ 이현정이 인터뷰어로 나서, 2013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남다른 환기와 열정으로 한 세상을 키워가는 여덟명의 여성 김영미, 최영아, 임오경, 김문정, 임영신, 이지선, 김기혜, 방귀회를 만났다. <시금치·1만3500원>

▲100명의 특별한 유대인=익숙한 유대인과 낯선 유대인, 착한 유대인과 나쁜 유대인... 모든 영역을 망라해 총 100명의 유대인을 엄선했다. 노스트라다무스에서 르윈스키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흥미롭게 조명했다. 책을 읽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서술했다. <메디치·2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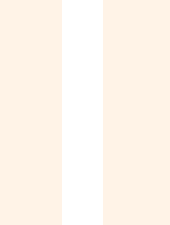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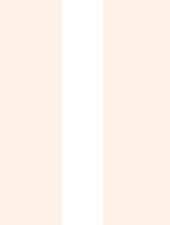
▲스티브 잡스, 생각확장의 힘=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스티브 잡스가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책은 스티브 잡스의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생각들이었다고 말한다. 다만 잡스는 그 평범한 생각들을 조금 더 키우는 법을 알았을 뿐이다. 잡스가 남긴 명언과 연설, 관련된 일화를 정리한 마흔 가지 이야기를 통해 잡스가 어떻게 자기 생각을 확장시켰는지, 그 생각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준다. <열의서재·1만3500원>



▲스마일리의 사람들=조지 스마일리 시리즈 중 7번째 작품. 영국 정보부의 조지 스마일리와 KGB의 스파이 마스터 카를라와의 마지막 대결을 다룬다. 은퇴한 늙은 스파이를 다시 첩보전의 중심으로 끌고 온 이야기는 ‘카를라 삼부작’의 시작인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와 함께 조지 스마일리 시리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자 궁극의 스파이 소설로 평가받는 존 르 카레의 대표작이다. <RHK·1만5000원>

▲잘 지내라는 말도 없이=작가 김동영의 첫 번째 장편소설. 인간의 생명까지도 옛가락처럼 내려놓은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의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를 아직 다 여물지 못한 나약한 인간의 내면이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괴리감을 어느 평범한 노인의 시선으로 그려낸다. 책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 인류의 영원한 화두,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결코 가깝지 않은 물음표를 던진다. <달·1만2000원>

▲논어로 대학을 풀다=학술 저널리스트 이한우가 핵심을 꿰뚫은 ‘대학’ 풀이의 결정판. ‘대학’은 송나라 때 학자인 주희가 ‘예기’ 49편 중 제42편에 집주를 달아 경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공자의 제자이던 증자가 기술한 경(經)과 증자의 뜻을 그 제자가 기술한 전(傳)의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이 책에서는 ‘논어로 논어를 풀다’, ‘논어로 중용을 풀다’를 인용해 새로운 독해와 이해의 방법을 제시한다. <해비·2만5000원>



▲수학 유령 베이커리=빵집을 배경으로 분수와 소수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만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스토리텔링 수학 동화. 간단하게 개념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식을 만들어 내 직접 계산을 하도록 유도한다. 매장의 마지막에 ‘수학+’라는 정리 페이지에서 개념을 다시 한번 다져준다. <살림어린이·1만1000원>

▲우리 모두 틀림없이 다르다=어린이 인권 이야기. 인권을 4가지 주제로 나눠 바라보고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겨 준다. 어려운 일이며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인권 지킴이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열다·1만1000원>

▲우리나라 좋은 동화 12=지난해 대표 아동 문예지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어린이들이 읽어야 할 좋은 동화와 동시를 모아 엮은 ‘우리나라 좋은 동화 12’, ‘우리나라 좋은 동시 33’이 나왔다. 좋은 동시에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우정, 가족 간의 사랑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랑새·각 권 1만1000원>



는 서로서로 도우며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노래동화·1만1000원>

▲미어캣의 스카프=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상품 ‘스카프’의 등장으로 야기된 미어캣들의 혼란과 피해해된 삶, 새로운 삶을 일구어 가는 과정을 그린 시사 풍자 그림책. 많이 갖고 싶은 욕심과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란 믿음이 팽배한 요즘의 우리들로

에게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미아·1만2000원>

▲우리나라 좋은 동화 12 외=지난해 대표 아동 문예지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어린이들이 읽어야 할 좋은 동화와 동시를 모아 엮은 ‘우리나라 좋은 동화 12’, ‘우리나라 좋은 동시 33’이 나왔다. 좋은 동시에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우정, 가족 간의 사랑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랑새·각 권 1만1000원>

## 어린이 책꽂이